



8월의 메모

천호부화장 전무 김 영 환

☆ 8월의 특징

1. 일년중 가장 더운 달이다. 찬물 공급과 공기의 유통을 최대로 늘려준다. 산란이 감소하므로 새벽 점등시간을 늘려 사료 섭취량을 늘려주고, 질이 좋은 사료를 공급한다.
2. 해 길이가 감소하여 산란을 감소시키므로 특히 점등에 유의한다. 일조시간은 매일 2분씩 감소, 월초에 14시간 06분에서 월말에는 3시간 02분으로 감소한다.
3. 태풍과 뇌우의 회수가 많으며 풍수해가 일어나기 쉽다. 배수로를 잘 정비한다.
4. 류코 사이토준 병의 발병이 증가 하는 달이다. 고여 있는 물을 없애고 살충제를 살포한다. 사료에 피리메타민 약제가 충분히 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류코사이토준병을 막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설과제와의 합제를 사용하는 것 바람직 하다.
5. 계획을 세워 양계장주위의 제초작업을한다
6. 케이지 물통의 위생관리에 특별히 유의.
7. 케이지의 모이통 바닥에 찌꺼기 사료가 부패되어 사료섭취량저하, 산란저하를 가져오므로, 모이통관리에도 특히 주의한다.
8. 산란노계의 도태예정량이 10월부터 크게 증가하여, 10월의 노계값 하락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능력 나쁜닭을 추려내는 방법으로 강도태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9. 금년 미국과 브라질의 옥수수작황은 대풍으로 예상되어, 구라파와 호주의 가뭄으로 인한 흉작을 상쇄하고도 작년보다 생산량이 많아 질것이라는 좋은 소식이다.
10. 이러한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한국배합

사료협회측은 금년 갑자기 불어난 배합사료수요량으로 인하여 옥수수 이외의 식물성단백질 급원과 강피류 원료가 크게 모자랄 것으로 보며, 매우 중대한 현안 문제가 되어있다고한다.

11. 미국은 작년의 콩 풍작으로 금년 작부면적을 10%감소 시킨데다가, 금년 콩 작황이 좋지 못해서, 지난 5월 대두 가격이 톤당 200불선에서 7월현재 280불선으로 크게 등귀하여 앞으로 대두박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12. 8월초부터 31공의 중탄생산을 개시 1개당 가격은 약 75원이 될 예정.

14. 계란가격(7월 27일현재)특란 26,대 23,중리, 소 19,경 15원, 계란 생산량의 증가로 계란가격은 계속 약세를 유지하다가 8월초를 지나면서 약한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예상된다.

15. 육계가격(7월 27일 현재)

중닭 대닭 모두 생체 4kg당 540원선, 지역에 따라 그이하 키워 놓은 닭을 팔때가 마땅치 않다.

우리 양계가 들도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이 땅에 토착화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양계 농민도 이법 시행을 협조하기 위한 각오는 한바이지만, 운영의 묘를 기하길 애타게 바란다.

16. 노계—키로당 470원선 :노계 출하량이 아직 많지 않아 가격은 좋은 편이다.

—대한민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동법시행령 5조 2항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린 닭은 시장이나 도지사 명으로 가축 방역관이 도살처분 하였을 때는, 당시 평가액의 2/5를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수 있다고.」—